

“구조개혁, 기대만큼 성과 못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획기적인 혁신 필요 강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정부의 구조개혁 추진 성과가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하며 “과감하고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 총재가 정부의 결단력있는 추진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국내 경제는 성장 흐름이 다소 완만해지고 반도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높아진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실물경제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야말로 긴 시계에서 계획을 수립해 꾸준히 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 총재가 취임 5년차, 연임 1년차를 맞은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중국이 ‘핀테크(FinTech)’, 빅

테크(Big Tech)로 앞서가는 나라로 꼽히고 있는 점을 언급, “중국 핀테크 발전의 주된 요인이 ‘정부의 인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까지 정부는 그야말로 (규제를) 풀어줬다는 뜻”이라며 “이 표현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올해 통화정책 기조를 더 완화적으로 가야할지 여부는 앞으로의 경기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 전개방향을 살펴야 한다”며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1.75%의 금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정한 중립금리 수준이나 유동성 상황 등에 비해 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긴 하지만 경계를 늦출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경제와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으로 진

단됐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늦춰지면서 주요국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당히 해소됐으나 미국의 무역정책과 관련해서 여전히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2월 주요 실물지표의 감소 폭이 컸는데 대외 여건 변화 등에 비춰볼 때 하반기에 좀 더 커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러나 2월에는 설 연휴의 영향도 작용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1월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바꿔야 할 정도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실적 부진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최근 반도체 경기는 일시적인 조정 국면의 성격이 강하고 하반기 이후 메모리 수요에 힘입어 개선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며칠새에는 하반기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조금 늦춰지거나,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경계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당분간 1%대를 밑돌겠지만, 공급측 하방 압력이 완화되면서 하반기 1%대 중반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이 총재는 전망했다. 그는 “저인플레이션은 금융위기 이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어난 공통된 현상”이라며 “2014년 이후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한데다

임금 상승률이 크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밸류체인(GVC) 참여, 온라인 거래 확산 등 구조적 요인이 물가하방 압력으로 작용했고,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와 석유류·농산물 가격 억제 등과 같이 일시적인 공급 측면에서의 추가 하방 요인이 (물가하방에)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역전 등과 관련해서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진게 사실이지만 금융시장이 다소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장단기 금리가 어떻게 갈지 좀 더 지켜보고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불거진 ‘리디노미네이션(Redemption: 화폐액면단위 변경)’ 논쟁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잠정 못지않게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단점도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없이 정책을 추진하면 의구심만 키울 수 있고 불필요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어디까지나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준비는 돼 있으나 논의를 먼저 주도하기 위해 말한 것은 아니고 그런 논의가 이뤄질 여건이 됐다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금융 샌드박스’ 시행... 19개 혁신서비스 심사

금융당국이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맞춰 우선 추진할 혁신 서비스 19건을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그간 금융 샌드박스에 대한 준비 상황과 운영 방향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 샌드박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혁신적 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규제 면제·유예를 뜻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로 대출 5건, 보험 2건, 자본시장

3건, 여전 3건, 은행 2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P2P 1건 등 19건이 선정됐다. 지난 1월 사전심사 접수된 105건 중 실무검토와 혁신위원 사전회의 등을 거쳐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 금리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와 개인간 송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규제특례’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해외여행자 보험을 필요할 때만 개시·종료할 수 있는 ‘스

위치(on-off) 방식의 보험 판매 규제 특례도 심사된다.

이밖에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서비스,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방식의 주식투자 중개 플랫폼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은행의 알뜰폰을 활용한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 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2~4일중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식심사를 받아 제2·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사전 신청된 105건에 대해서도 상반기중 처리를 마무리짓고 6월중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는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 시장 검증해 볼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경험하고, 금융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포용금융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심사위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의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9명과 학계, 산업계, 법조계, 소비자보호 부문 등에서 위촉된 위원 15명 등으로 꾸려졌다.

/*뉴스

NH코뱅크, 봄맞이 고객 감사 이벤트 실시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소성모)은 봄맞이 고객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내 마음의 봄, 내 손안의 봄’ 이벤트를 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1일부터 4주 동안 매주 주 차별 응모가 가능하며, 해당 주의 코

뱅크, 쿠팡푸드, 쿠팡 신규 가입, 쿠팡푸드 3만원 이상 결제, 선물하기 및 쿠팡페이 1만원 이상 구매자 각각에 대하여 응모권을 중복 부여한다.

이후 주차별 추첨을 통해 매주 1명에게 황금돼지 5돈과 50명에게 쿠팡

드 이용쿠폰(1만원), 125명에게 NH멤버스 포인트(5,000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일, 출시 31개월 만에 가입자 400만 명을 달성한 NH코뱅크는 일일 방문고객 수 100만 명에 일송금 건수 또한 100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농협의 대표 간편뱅킹 앱이다.

이벤트와 더불어 4월 중에 증권추천 서비스와 교통카드 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뱅크 및 관련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코뱅크 앱과 스마트 상담센터(1600-2800) 가까운 농·축협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하림, 상생펀드 첫 결실

김제 식품업체에 4억1000만원 대출키로

(주)하림이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조성한 상생펀드가 첫 결실을 맺었다.

하림은 1일 닭고기 가공제품 생산설비 현대화를 희망하는 김제의 한 식품업체에 상생펀드 4억 1000만원을 대출키로 결정했다.

이 업체는 도시락·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전문업체로 펀드 대출금은 생산 확대와 품질 개선을 위한 설비 투자에 활용된다.

이 펀드는 하림이 예치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연 2.1%)를 협력업체 대출 시 보전 금리로 적용하게 된다.

협력업체는 필요한 자금을 할인된 저금리 우대 적용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하림은 지난해 11월에 상생펀드 조성을 위해 KEB하나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림은 현재 위탁 농가 4곳이 시설 개보수를 위해 신청한 14억 8000만원에 대해 KEB하나은행에 심사 자료를 제출해 대출 실사를 진행 중이다. 또 임대계·닭고기 가공 전문 협력업체 1곳에 대해 생산설비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대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상생경영에 나서고 있다.

박길연 대표이사는 “이번 상생펀드 첫 결실을 계기로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펀드 지원으로 협력업체의 자금 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그에 따라 경쟁력을 높여 지속적인 동반성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북우정청, 우정사업 경영평가 경영대상 수상

전북지방우정청(청장 전성무)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지방우정청을 대상으로 우편, 예금, 보험사업 등 모든 분야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우정사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9개청 중 경영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우정청 개청 이래 가장 좋은 성적이며 평가 지표인 우편매출액, 예금사업수익성, 정산초회보합률 등 순 사업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한 것으로 전북청 소속 219개 우체국의 사업 성과를 종합하여 얻어낸 평가 결과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전성무 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어

려운 환경에서도 우정청과 전북지역 모든 우체국이 ‘소통 혁신 융합 상생’의 경영 목표를 기반으로 하나가 되어 펼친 열정의 결과물로 “전북우정 구성원 모두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년에도 우체국에서는 신뢰받는 우정행정 구현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우편물 배달과 착한 금융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민의 농, 수산물 판로개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플랫폼 역할도 강화하여 국민에게 더 사랑받는 우체국으로 다가서자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남원우체국, 보험 연도대상 최고 성적 거뒀

남원우체국(국장 유기권)은 최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우체국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발군의 성과를 거두었다.

남원우체국이 거둔 성과는 전국에서 종합 3위의 성적이며, 분야별로 관서 부문에서는 은상, 리쿠르팅 부문에서는 동상을 수상하고, 김형숙FC가 명인(MDRT)에, 강영숙FC가 신인왕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전북도내 우체국 중 최고의 성적으로, 남원우체국은 그동안 생산성 향상 과정과 멘토·멘티제 운영 등 FC 역량을 강화하고 신인 FC 역량 강화를 위한 매니저 코칭과 MDRT, 신인왕 후보를 관리하는 등 우수



FC 육성을 통한 영업조직력 향상 및 주기적인 이벤트 개최와 간담회, 워크숍 등의 동기부여로 자발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유기권 국장은 “앞으로도 즐거운 일터, 행복한 남원우체국을 만들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우체국이 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